

대화 의 조각

대화의
조각

김윤수 김기락 여해인 조한결

DIMO

풍물축제 재미있나요?

날씨좋은날 어디에 가고싶어요?

햄스터는 세상에서 가장 귀엽지 않나요?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공연이나 전시 자주 보러가나요?

요즘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밥 뭐먹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인천에 살고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가 좋은데 학교를 좋아하시나요?

제일 여행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월급날에 뭐 드시나요?

주식투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 T야?

부자되는 비법 알려주세요!

어느 회사에 다녀요?

메뉴 뭐먹을지 고민될 때 어떻게하시나요?

아... 너 F야?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 알려주세요!

다이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뭘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엠비티아이 뭐예요?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시나요?

어떤 운동 하세요?

지금 가장 땡기는 음식은?

꿈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본다면?

신을 믿으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볼펜 색깔이 무엇인가요?

어떤 운동 하세요?

지금 가장 땡기는 음식은?

꿈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본다면?

신을 믿으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볼펜 색깔이 무엇인가요?

고향이 어디신지요?

운동해야하는데 하기싫을때 어떡하나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명절에 1번 부모님 뵈러간다, 2번 해외여행 간다, 3번 집콕한다.

어렸을 때 꿈은 뭐였나요?

나만 알고 싶은 명소가 있나요?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했던 행동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직업이 뭐예요?

가장 설렜던 순간이 있나요?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을때가 언제인가요?

근처 맛집 추천해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림 그리는거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취미가 뭐예요?

Is the Pungmul Festival fun?

Where do you want to go on a nice weather?

Aren't hamsters the cutest in the world?

What's your favorite song?

Do you often go to see shows or exhibitions?

What is your favorite hobby these days?

What should I eat now?

What's your favorite movie?

Why do you live in Incheo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I like school, do you like school?

Where do you want to travel the most?

What do you eat on payday?

How do I invest in stocks?

Are you T?

Tell me how to be rich!

Which company do you work for?

What do you do when you're thinking about what to eat?

Oh, my... Are you F?

Tell me your own way to relieve stress!

Tell me how to diet!

I can't do anything after work because I'm tired. What should I do?

What is your MBTI?

Do you respect yourself?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What food do you want to eat the most right now?

Do you have a dream?

Can you compliment myself today?

Do you believe in God?

What is your favorite pen color?

Where are you from?

What should I do when I have to exercise but I don't want to?

What is your favorite thing?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the holidays? 1. I go to see my parents, 2. I go on an overseas trip, 3. I stay home.

What was your dream when you were young?

Is there any location that only I want to know?

What book did you enjoy reading the most?

What's the proudest thing you've ever done?

What's your job?

What was the most exciting moment?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en was the hardest time in your life?

Please recommend a good restaurant around!

What was the happiest day of your life?

If you can go back to the past, when would you like to go back?

I wonder how much the deposit and monthly rent of the house you live in

Do you like drawing?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hobby?

I changed the name of the store, should I change the sign?

What are the thoughts of people spitting on the street?

風物祭りは楽しいですか？

天気の良い日にどこに行きたいですか？

ハムスターは世界で一番かわいいですよね？

好きな歌は何ですか？

公演や展示をよく見に行きますか？

最近一番楽しんでいる趣味は何ですか？

今、何を食べますか？

一番好きな映画は何ですか？

仁川に住んでいる理由が知りたいです

あなたにとって一番大切なことは何ですか？

私は学校が好きですが、あなたは学校が好きですか？

一番旅行に行きたい場所はどこですか？

給料日に何を食べますか？

株式投資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あなたはTですか？

金持ちになる秘訣を教えてください

どこの会社に通ってますか？

メニュー何食べようか迷ったらどうしますか？

あ...あなたFなの？

ストレス発散の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

ダイエット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

仕事帰りに疲れて何もできないんですけど、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mbtiって何ですか？

あなたは自分を尊重していますか？

どんな運動をしますか？

今、一番食べたいものは？

夢はありますか？

今日の自分を褒めてあげるとしたら？

神様を信じますか？

好きなボールペンの色は何色ですか？

あなたの故郷はどこですか？

運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嫌な時はどうしますか？

一番好きなものは何ですか？

私は休日に1番両親に会いに行く、2番海外旅行に行く、3番家でゴロゴロする。

子供の頃の夢は何でしたか？

自分だけが知っておきたい名所はありますか？

一番面白かった本は何ですか？

自分がした行動の中で最も誇りに思うことは何ですか？

あなたの職業は何ですか？

一番ドキドキした瞬間はありますか？

自分はどんな人ですか？

今まで生きてきて一番辛かった時はいつですか？

近くのおすすめグルメを教えてください

私の人生で一番幸せだった日はいつですか？

もし過去に戻れるとしたら、いつに戻りたいですか？

住んでいる家の敷金と家賃はいくらですか？

絵を描くのは好きですか？

好きな食べ物は何ですか？

趣味は何ですか？

お店の名前を変えたのに、看板を変えようか？

道に唾を吐く人は何を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你觉得韩国农乐节好玩吗？

天气好的一天你想去哪里？

仓鼠不是世界上最可爱的动物吗？

你喜欢哪一首歌呢？

你经常去看演出或展览吗？

你最近最喜欢做什么？

给我推荐一下今天晚饭要吃什么

你最喜欢哪一部电影？

你什么住在仁川呢

对你来说人生中最重要的是什么？

我很喜欢学校这个场所，你对学校有什么感觉呢

你最想去哪里旅行？

发工资的那一天你一般吃什么？

你知道学习投资股票的好方法吗？

你是T吗？

告诉我致富的秘诀

你在什么公司工作？

当你无法决定午餐吃什么时，你会怎么做？

你是F吗？

告诉我你自己的缓解压力的方法。

告诉我如何减肥

下班后我都太累了，什么也做不了，我该怎么办？

你的MBTI是什么？

你尊重你自己吗？

你做什么运动？

你现在最想吃的是什麼？

你有梦想吗？

你今天想给自己说哪一句赞美的话呢？

你信神马？

你最喜欢什么颜色的圆珠笔？

你的家乡是哪里？

当我需要运动但又不想运动时该怎么办？

你最喜欢什么东西？

请选择你春节做了什么 1. 去见父母 2. 去国外旅行 3. 呆在家里

小时你的梦想是什么？

有没有一个只有你想知道的场所？

你最喜欢的书是哪一本呢？

请分享一个最自豪的事情。

你做什么工作？

你记得的最激动人心的时刻是什么？

你是个什么样的人？

迄今为止，你人生中最困难的时期是什么时候？

给我推荐一下美食店

你的人生中最快乐的一天是哪一天？

假如你能回到过去的一天，你想回到哪一天？

我很好奇您所住的房子的押金和月租是多少

你喜欢画画吗

你最喜欢吃什么？

你的爱好是什么

我换了点名，你觉得我该不该换招牌？

你对在街上吐口水的那些人有什么想法？

Pungmul ပွဲတော်သည် ပျော်စရာကောင်းပါသလား။
သာယာတဲ့နံ့လေးမှာ ဘယ်ကိုသွားချင်လဲ။
Hamster က ချစ်စရာအကောင်းဆုံးလို့မထင်ဘူးလား?
ကျိတ်တဲ သီချင်းက ဘာပါလဲ?
ရိုးပွဲ သို့ ပပြီများ ခဏခဏ သွားကပြည့်ဖို့ပါသလား?
ခုတလော အမဲပြုပဲဖို့နဲ့တော့ ဝါသနာက ဘာပါလဲ?
အခု ထမင်း ဘာစားမလဲ ?
အကျိတ်ဆုံး ရုပ်ရှင်ကဘာပါလဲ
အင်ချွန်းမှာ နနေရေတဲ့ အကောင်းအရင်းကို သိချင်ပါတယ်
သင့်အတွက် အရေးကြီးဆုံး အရာက ဘာပါလဲ?
ကျွန်တော်ကတော့ ကျောင်းက ကောင်းပမေယ့် ကျောင်းကို တကယ်ရော
ကျိတ်ရလား?
ခရီးအသွားချင်ဆုံး နရောက ဘယ်နရောလဲ?
လခရတဲ့နံ့မှာ ဘာစားပါလဲ?
စတော့ရှယ်ယာ ဘယ်လိုလုပ်ရမလဲ?
သင်က T လား?
သူဌေးဖို့တဲ အမဲလမ်းကောင်း ပြောပြပေးပါ
ဘယ် ကုမ္ပဏီမှာ သင် အလုပ်လုပ်တယ်လဲ?
Menu ကပြည့်ပြီးဘာစားရမလဲ မသိတဲ့အချိန် ဘယ်လိုလုပ်ပါသလဲ?
အာ... နင် F လား?
Stressပျောက်အောင်လုပ်တဲ့ ကိုယ်ရဲ့ နည်းလမ်းက ဘာပါလဲ ?
Diet ဝိတ်ချတဲ့ နည်းလမ်းလေး ပြောပြပေးပါ
အလုပ်ဆင်းလို့ ပင်ပန်းလာပြီးဘာမှ မလုပ်ချင်ရင် ဘယ်လို လုပ်မလဲ!
MBTIက ဘာလဲ?
သင်ဘာသာသင် လေးစားမှုရှိပါလား?
ဘယ်လို အားကစားလုပ်ပါသလဲ?
အခုချိန်မှာ အစားချင်ဆုံး အစားအစာက ဘာပါလဲ ?
အိမ်မက်ရှိပါသလား?
ဒီနဲ့ ကိုယ့်အတွက် ချီးမွန်းစကားလေး ပြောရမယ်ဆို ဘာပြောချင်ပါလဲ?
နတ်ကို ယုံပါသလား?
အကျိတ်ဆုံး ဘာလဲပင် အရောင်က ဘာပါလဲ?
မွေးရပ်မမြက ဘယ်မှာပါလဲ?
အားကစားကို လုပ်ရမှာသိပေမယ့် မလုပ်ချင်တာ ဘာလို့ပါလဲ?

အကျိက်ဆုံး အရာက ဘာပါလဲ?

ငါကတော့ အားလပ်ရပ်မှာ ၃. မိဘတို့ကို တွေ့ဖို့သွားတယ် ၊ နိုင်ငံခြားကို ခရီးထွက်တယ် ၃.အိမ်ထဲမှာပဲနေတယ်

ငယ်ငယ်တုန်းက အိမ်မက်က ဘာပါလဲ

ကိုယ်တိုင်ပဲ သိစေချင်တဲ့ နာမည်ကျီးနဲ့ရောရှိပါသလား?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အောင် ဖတ်ခဲ့တဲ့ စာအုပ်က ဘာပါလဲ ?

ကိုယ်တိုင်လုပ်ဆောင်ခဲ့တဲ့ အလုပ်တွေထဲမှာ ဂုဏ်ယူစရာကောင်းတဲ့ အလုပ်က ဘာပါလဲ?

သင် ဘာ အလုပ်လုပ်ကိုင်ပါလဲ?

ရင် အရမ်းခုန်ခဲ့တဲ့ အချိန်ရှိခဲ့ပါသလား?

ရင် အရမ်းခုန်ခဲ့တဲ့ အချိန်ရှိခဲ့ပါသလား?

အခုအချိန်ထိ နှလောတဲ တစ်လျှောက် အပင်ပန်းဆုံး အချိန်က ဘယ်တုန်းကပါလဲ?

အနီးနားက အရသာရှိတဲ့ဆိုင်ကို လမ်းညွှန်ပေးပါ

ဘဝမှာ အပျော်ရွှင်ရဆုံးနဂါး ?

အကယ်၍ အတိတ်ကို ပြန်သွားလို့ရမယ်ဆို ဘယ်အချိန်ကို သွားချင်ပါလဲ?

အခုနေ့နေတဲ့ အိမ်က စပေါ့ငွေနေ လစာကို သိချင်ပါတယ်

ပန်းချီဆွဲရတာကို ကျိန်ပါသလား?

အကျိက်ဆုံး အစားအစာက ဘာပါလဲ ?

ဝါသနာက ဘာပါလဲ?

ဆိုင်အခြေအနေကို ပြောင်းလဲရမယ်အချိန်မှာ ဆိုင်ဆိုင်းဘုတ်ကိုပါ တခါထဲ ပြောင်းမှာလား?

လမ်းသွားရင် တံတွေးထွေးတဲ့လူတွေရင် ဘယ်လိုတွေးမိပါလဲ?

အလုပ်တက် အလုပ်ဆင်းတဲ့အချိန်တွေမှာ ဘယ်လို အတွေးမျိုးကို တွေးပြီး သွားလာပါလဲ?

အားလပ်ချိန်မှာ လုပ်ဆောင်နေတဲ့ ဝါသနာကို ဘယ်လို မျိုး စလုပ်ဆောင်ဖို့တာပါလဲ ?

ဝါသနာပါတာကို အားတက်တရော လုပ်ဆောင်ချင်တဲ့ စိတ်က ဘယ်လောက်ရှိပါသလဲ?

စကားဝိုင်းအပိုင်းအစများ

차례

서문

프로젝트소개

질문과 답변들

맺음말

서문

안녕하세요. DIMO 입니다. 프로젝트 ‘대화의 조각’은 부평구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협력네트워크 <문화 1호선>의 ‘좋은 일을 만들어요’ 공모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평, 부천, 영등포, 수원, 의정부 그리고 코레일과 함께 1호선 내에 좋은 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공모의 주제였습니다.

저희 디모팀은 2020년도에도 부평구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평구 9개 동을 아카이빙 하는 프로젝트 <부평 COLLECTION>을 진행했습니다. <부평 COLLECTION>은 부평구 전체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부평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진과 사운드 샘플링을 통해 아카이빙을 진행했고 그중에는 재개발되어 사라진 부평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수집한 사진과 사운드는 아카이브화 하여 도록을 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2023년 새로운 프로젝트 <대화의 조각>을 위해 디모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 디모팀은 2020년도에도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평구 9개동을 아카이빙 하는 프로젝트 <부평 COLLECTION>을 진행했습니다. <부평 COLLECTION>은 부평구 전체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부평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진과 사운드 샘플링을 통해 아카이빙을 진행했고 그중에는 재개발되어 사라진 부평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수집한 사진과 사운드는 아카이브화 하여 도록을 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2023년 새로운 프로젝트 <대화의 조각>을 위해 디모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처음 공모 내용을 접하고 1호선을 무대로 ‘좋은 일’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출퇴근에 지친 직장인분들에게 커피나 과자같은 걸 무료로 나눠주는것만해도 좋은 일일까 생각도 했습니다. 부평역에서 멋진 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클래스를 열어도 분명 좋은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문화도시에서는 이런 좋은 일을 만들고 있고 말이죠!

이 프로젝트는 부평의 1호선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1호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

했습니다. 그저께 미국에 있던 사람도 오늘은 부평의 1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공간의 한계에 집중하기보단 무궁무진한 이용자들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닌 장기적이고, 따라서 세상을 바꿀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다양성과 확장성은 저희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현대 사회의 공동체 모습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공동체는 소통하는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소통의 방법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이 크게 바뀌며 이러한 변화는 그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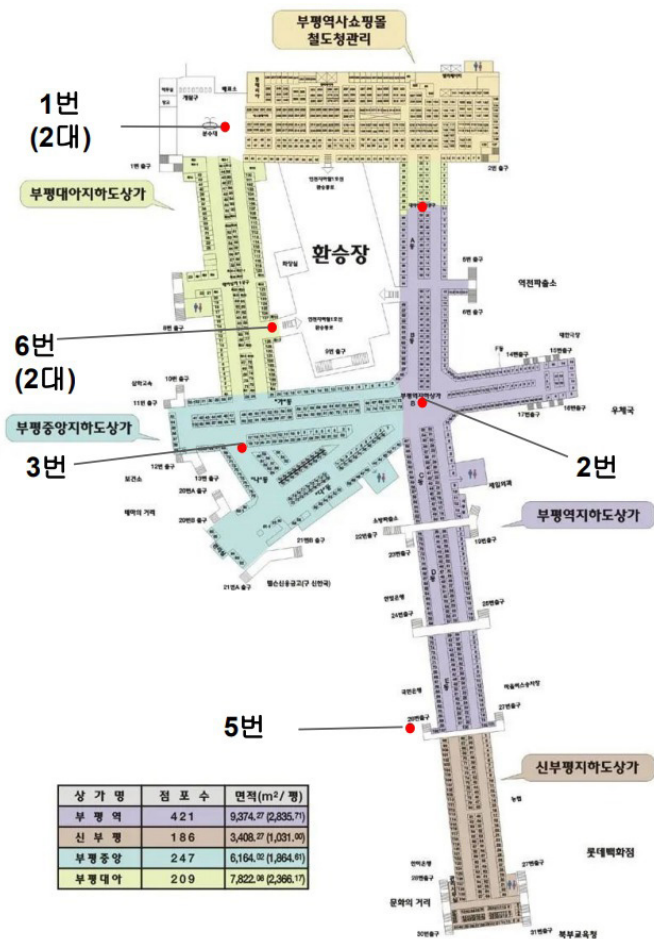
오늘날 공동체의 모습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나'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국가, 민족, 성별, 재산, 이념, 종교, 사상, 학벌 등 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 '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고 우리를 완결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정해진 것들로부터 탈피하고 있고 그저 '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완전히 탈피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날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더 이상 타자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나’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축복일까요? 부작용일까요? 당연하게도 모두의 생각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은 달라졌고, 특정 범주에 따라 삶이 완결됐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름’이 생겨났습니다. 이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어야 할까요? 다름이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어떠한 간격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축복인 다름이 간격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조각> 프로젝트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화의 조각> 프로젝트는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대화를 완성합니다. 참여자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화하게 되고, 나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묻고, 답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과정이야말로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분명 ‘좋은 일’일 것입니다. 대화는 즐거우니까요!

프로젝트 소개

<대화의 조각> 프로젝트는 2023년 10월 14일~ 15일 이틀간 오전 10시~ 오후 9시까지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동안 부평역과 부평역 지하상가 전체에 7개의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고 처음 화면에는 단 두가지, QR 코드와 질문만 나타납니다. 질문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부평구 시민들에게 제보받은 '이웃들에게 묻고싶은 질문' 총 51개이며 질문은 6분마다 교체됩니다. QR코드를 통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답변은 7개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출력됩니다. QR코드 접속시 디모에서 개발한 웹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질문과 답변 입력창, 그리고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서는 프로젝트소개, 팀소개, 참여 방법, 언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복된 답변은 색깔 표시가 되고 중복이 많을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또한 모니터 아래에는 5개국어로 'QR코드를 통해 질문에 답변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쓴 시트지를 붙여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각 모니터 설치 위치

모니터 위치선정

모니터를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는일은 가장 어려운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기 배선과 부평역 이용자의 안전, 유동인구,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지속적인 답사를 했고 부평역 역장님을 비롯해 경비아저씨, 지하상가의 각구역 담당자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0대의 모니터를 기획했지만 중간에 기획을 변경해 8대로 줄였고 실제 모니터 설치 당일날 배선 문제로 설치 불가능한 장소 한군대를 제외하고 총 7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치 선정도 어려웠지만 지하 공간에 대형 모니터를 옮기는 것, 그리고 선정된 위치에 기기들을 세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설치 된 모니터 모습

휴대폰 세팅

모니터에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각각 노트북이 한 대씩 필요했는데 예산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로 노트북 대신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구매해 에그와 핸드폰을 한 대씩 넣어 네트워크가 가능한 임시 컴퓨터를 만들었었습니다. 핸드폰과 모니터의 직접 연결이 불가능해서 무선 동글을 통해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도중 발열 문제나 네트워크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임시컴퓨터 설치 모습

개발 과정

모니터 화면과 답변 입력 웹 개발을 포함해 모든 소프트웨어는 김기락님이 구현해 주셨습니다. 크게 모니터에 나타날 화면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는 웹 화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모니터에 나타날 화면에는 참여자가 입력하는 모든 답변이 확대되어 나타났다가 점점 줄어드는 기능, 중복되는 답변에 키워드마다 색깔이 부여되고 중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커지는 기능부터 답변의 개수, 위치 등 디테일한 조정까지 구현했습니다.

참여자가 답변을 입력하는 웹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답변 입력창이 있으며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통해 프로젝트 소개, 팀 소개, 참여 방법을 알 수 있게 했고 언어 선택, DIMO 인스타그램 접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배나 너무 긴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당 최대 답변 횟수를 제한했고 답변당 최대 글자 수 또한 제한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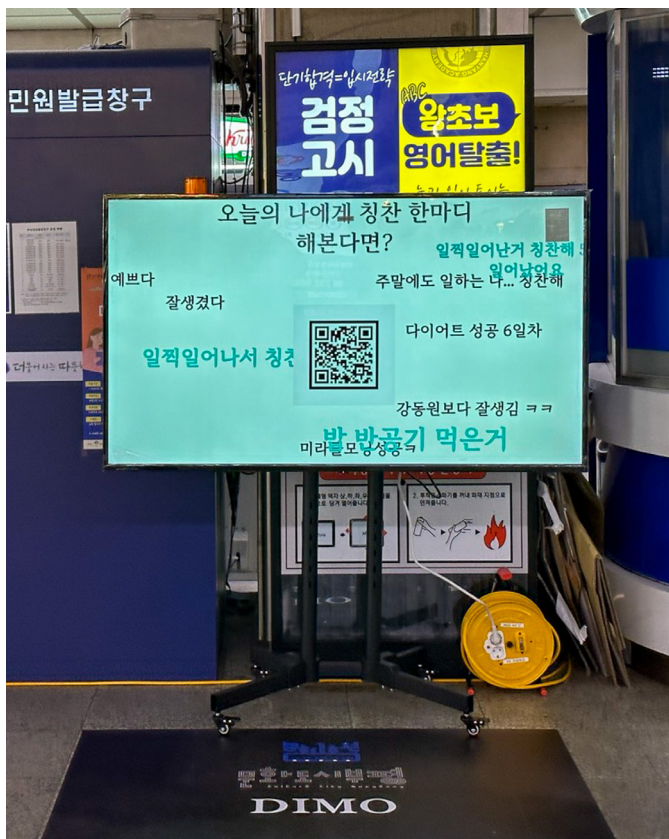
우선 기획안을 전달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달해 주신 기획안을 바탕으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야 할지 정리하였습니다. 기획안을 봤을 때 다양한 종류의

기기에서 앱이 실행되어야 해서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앱 간 텍스트 전송이 가능하도록 서버 쪽 부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Photon Chat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을 구현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장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부분을 개발하였습니다. 예상하는 답변을 정리하여 그로부터 자주 나오는 조사, 어미 등을 파악하고, 해당 단어들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입력받는 문장을 잘라 키워드를 뽑아내게 구현하였습니다.

여러 기기의 앱 간에 질문 및 답변이 연동되게 하려고 기기의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삼게 코드를 짰습니다. 여러 언어가 이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코딩 및 폰트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의 답변을 보고 지을 수 있는 모니터링 앱을 만들어서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현 화면



모니터 실제 작동 모습

1:42

5G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 알려주세요!

사람들의 답변!

loading...

여기에 답변을 입력하세요

전송

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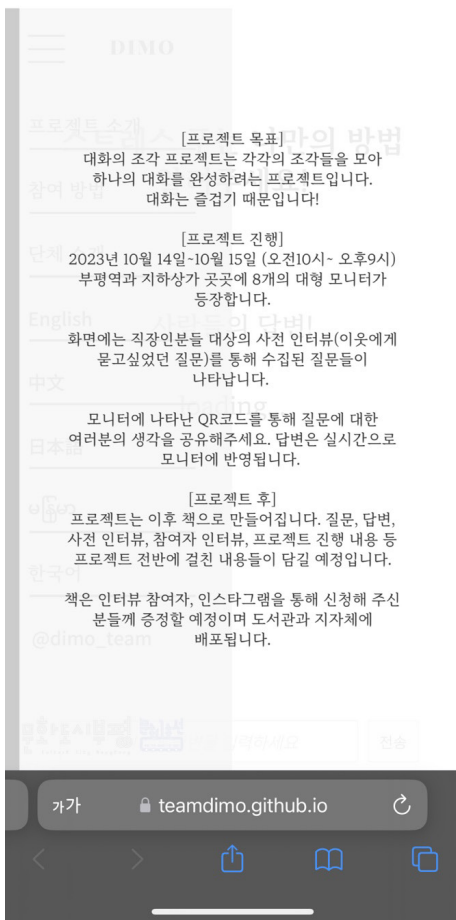
teamdimio.github.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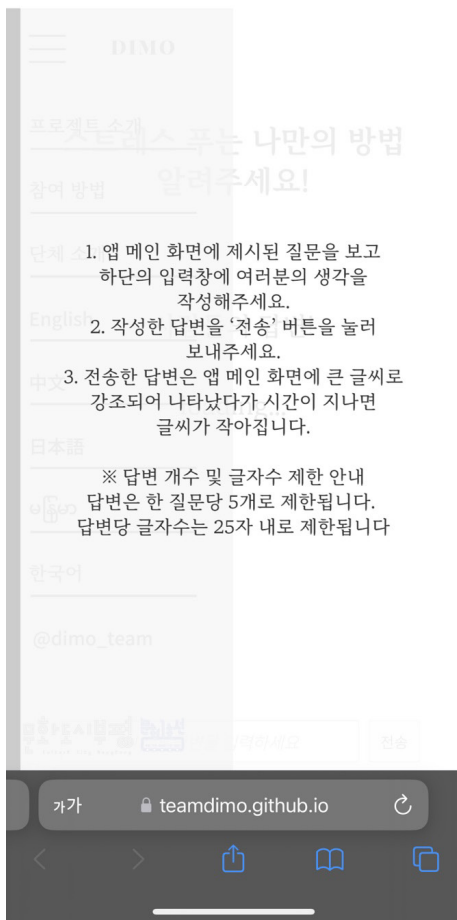
QR접속시 처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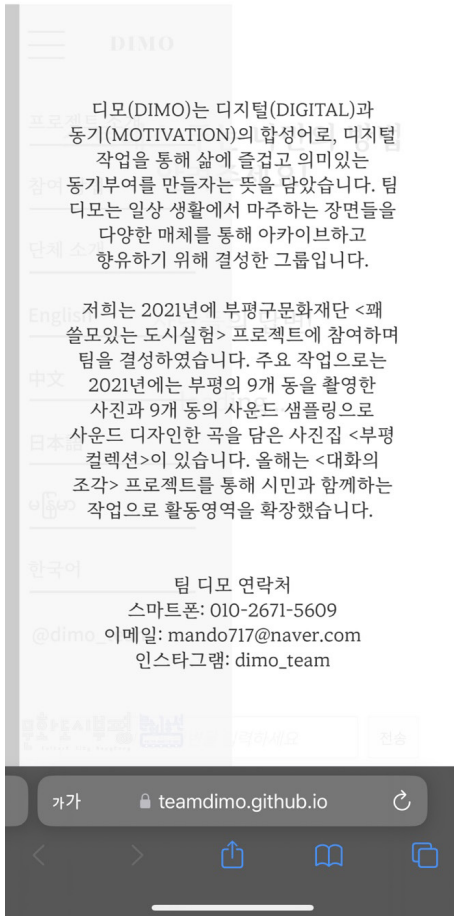
메뉴 버튼 눌렀을 때 화면



프로젝트 소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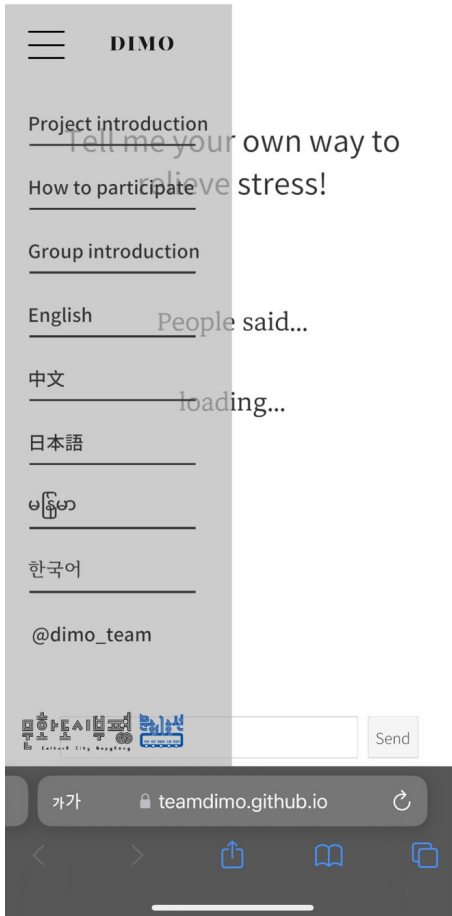
참여 방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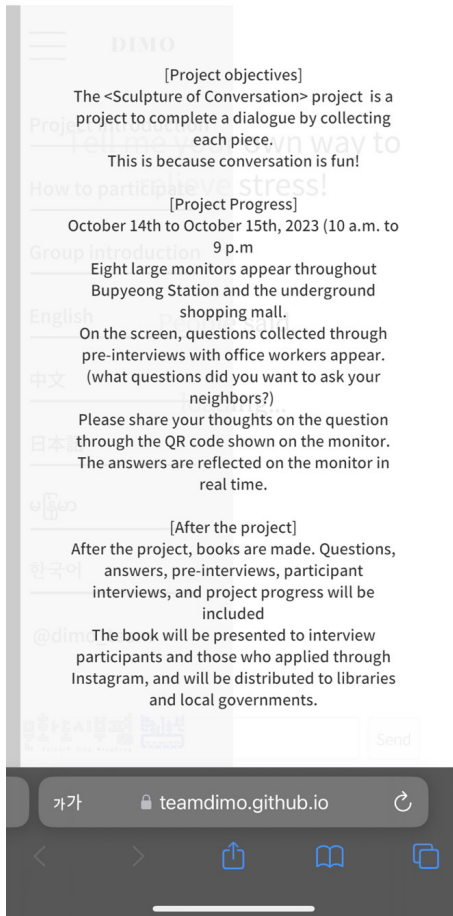
팀 소개 화면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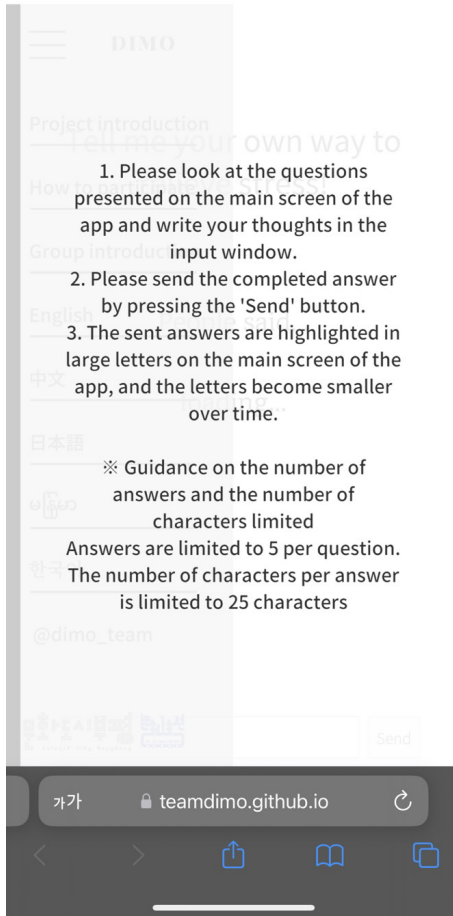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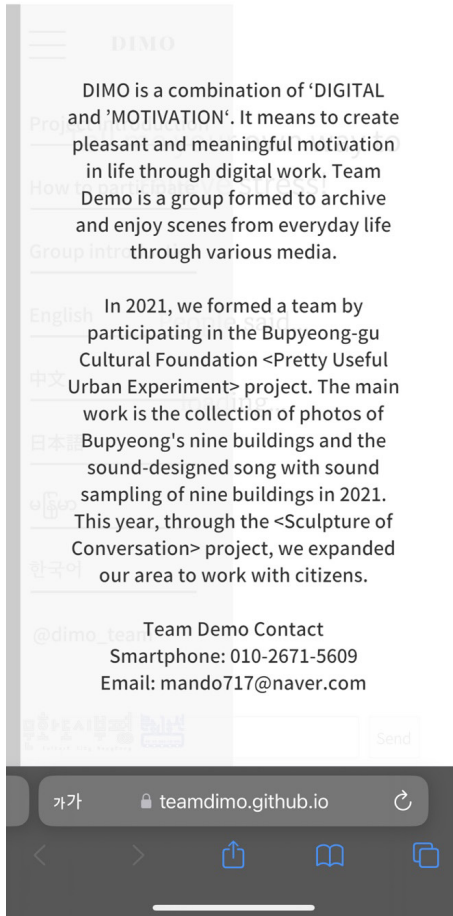
영어로 언어 변환시 화면



영어로 언어 변환시 프로젝트 소개



영어로 언어 변환시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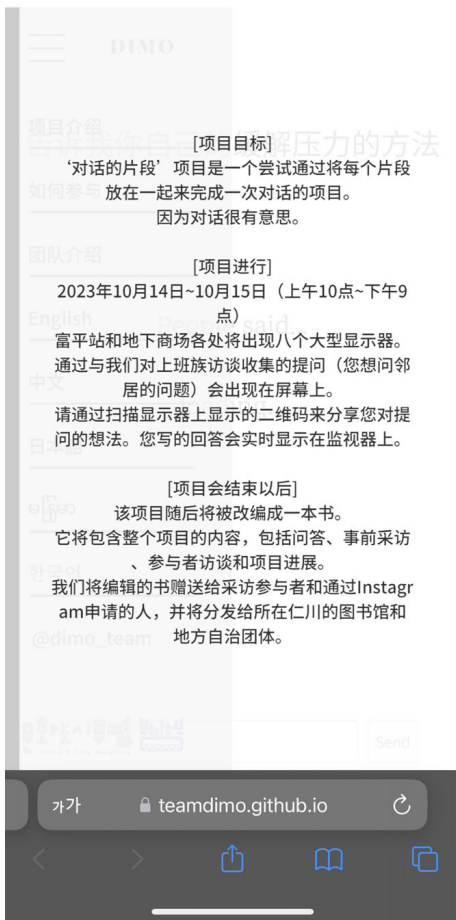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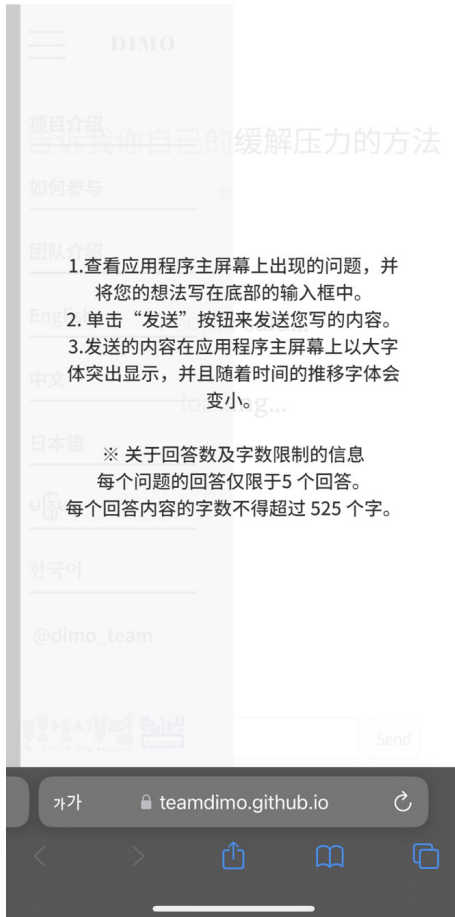
1:42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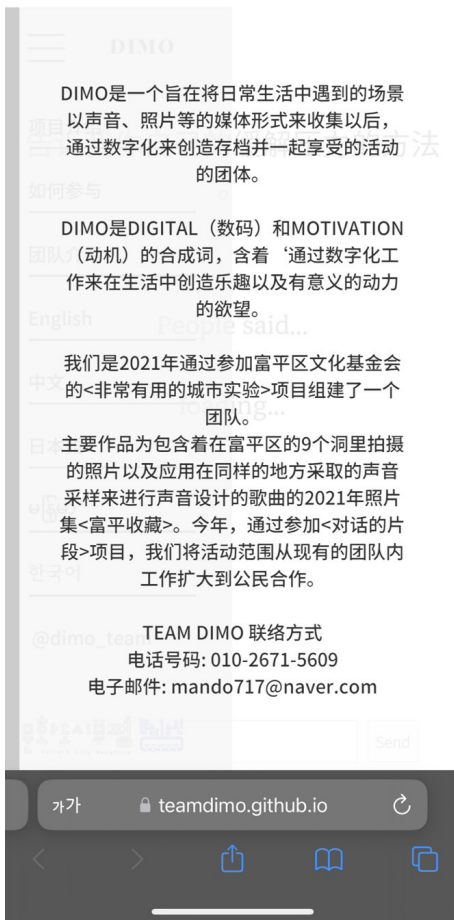


중국어로 언어 변환시 화면





중국어로 언어 변환시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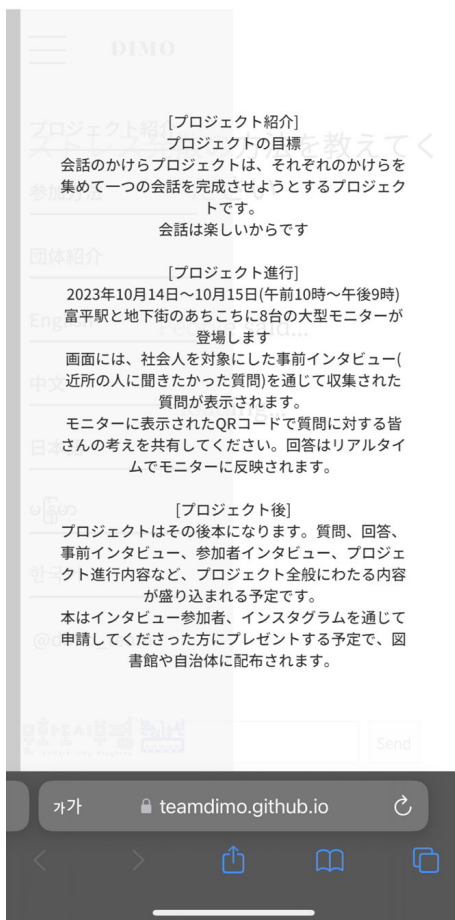
중국어로 언어 변환시 팁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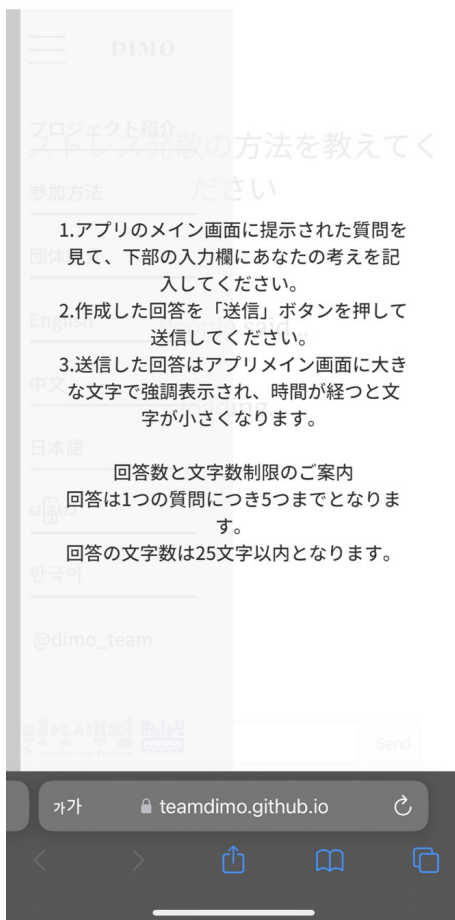
1:42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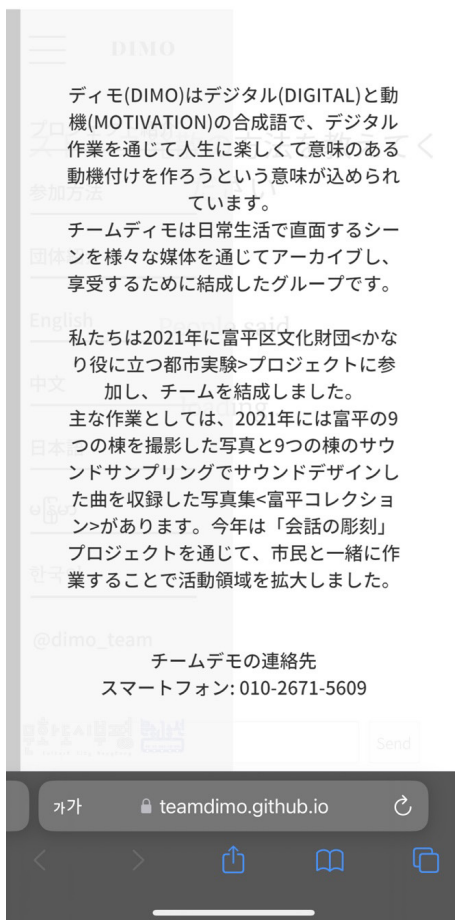


일본어로 언어 변환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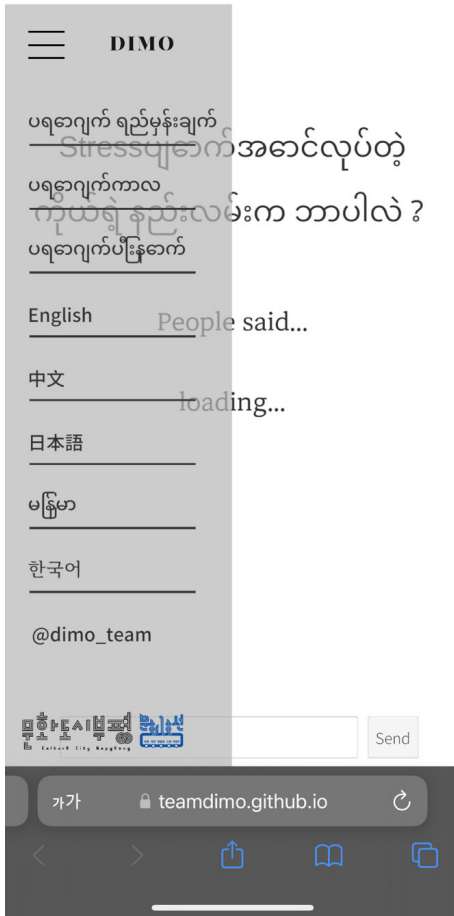
일본어로 언어 변환시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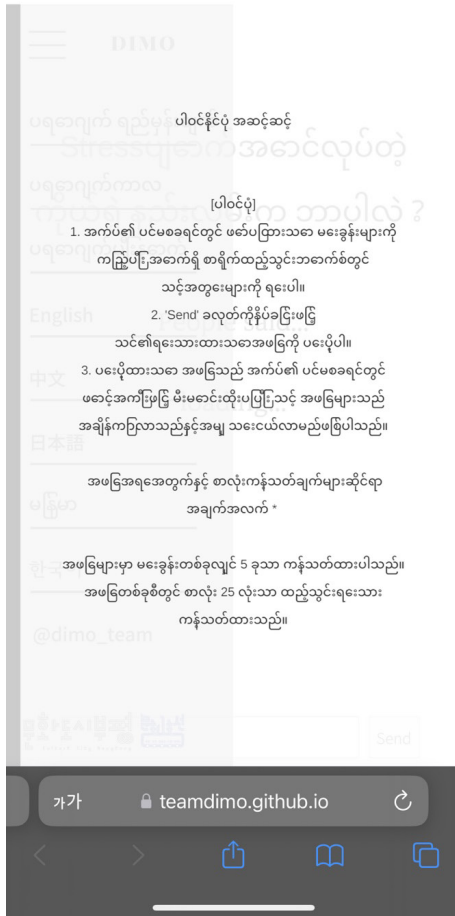
일본어로 언어 변환시 팁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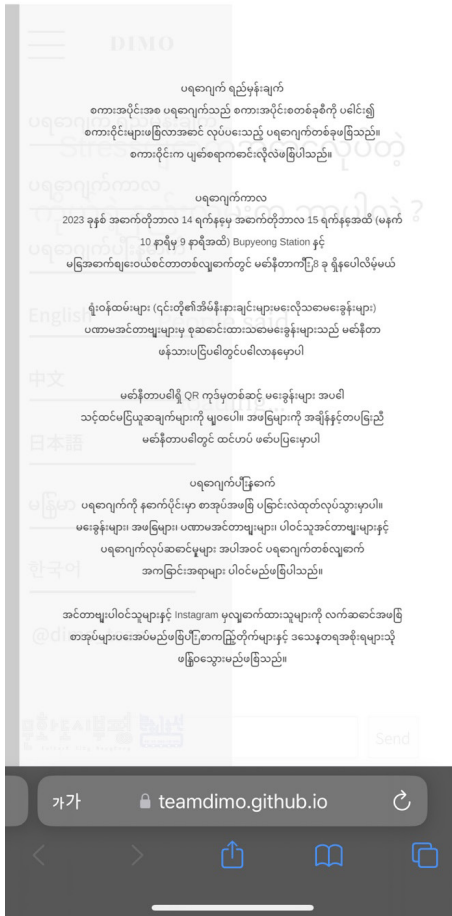
1:43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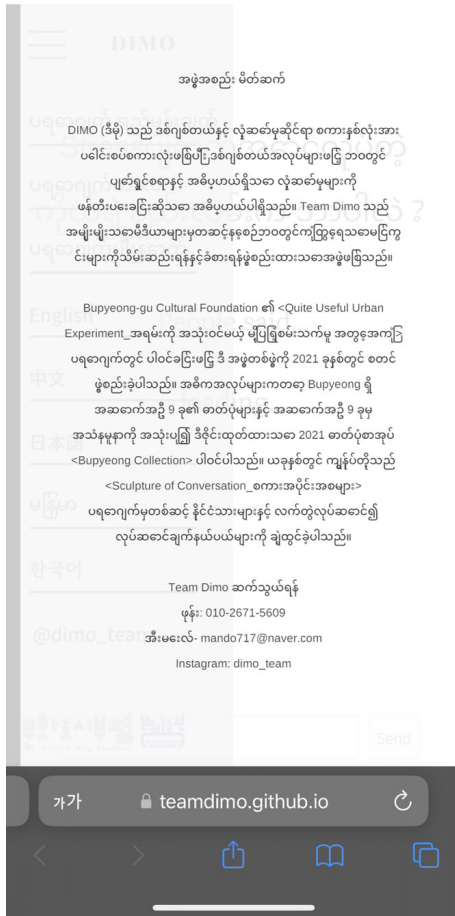


미안마어로 언어 변환시 화면





미얀마어로 언어 변환시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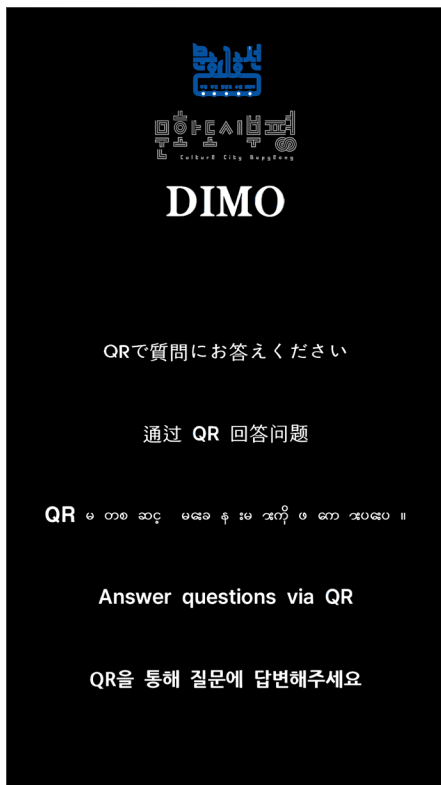
미얀마어로 언어 변환시 됨

5개국어 번역

모든 질문과 QR코드 접속 시 메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미얀마어로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에 많은 언어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언어 세가지를 뽑은것입니다. 미얀마어의 경우 **부평역 근처에 미얀마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5개 국어를 지원한다는 점은 <대화의 조각> 프로젝트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중국어 번역을 도와주신 이성원(李晟瑗)님, 일본어 번역을 도와주신 오태웅님, 미얀마어 번역을 도와주신  (표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쁘게도 5개 국어 모두 답변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답변이 많지는 않았지만 5개 국어를 지원한 것은 충분히 가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모니터에는 한국어 질문 하나만 띄울 수 있어서 QR로 접속해야 번역된 질문을 볼 수 있는데, 외국어 사용자에게 맨 처음 프로젝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5개 국어로 'QR코드를 통해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써 바닥에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QR코드 접속

시 메뉴를 통해 언어를 변경하면 질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소개, 참여 방법, 단체소개까지 번역된 언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와 최대한 비슷한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트지 디자인

질문 수집 및 사전 인터뷰

화면에 어떤 질문이 나타나는지는 참여자 경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질문에 따라 답변을 이나 참여 대상도 달라지지만, 무엇보다 질문에 따라 대화의 주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대표성 측면에서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제보받았고 소통에 대한 인식이나 부평에서의 생활에 대해 심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직접 패널을 제작해 부평아트센터와 부평역에서 포스트잇으로 시민들에게 질문을 제보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총 47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패들릿을 통해 질문을 수집했고 총 3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중 56개의 질문을 선정했으며 시간대를 고려해 점심, 저녁 시간에는 음식 관련 질문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소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부평구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철물점 사장님, 대학교 교직원, 목공방 사장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심화 인터뷰 1.

다들 취미 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 밴드의 키보드 연주자로 활동하시는 Y선생님과의 대화

9월 28일,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한 추석 연휴에 가톨릭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Y 선생님을 만났다.

부평구 삼산동에 거주하고 계신 선생님은 퇴근 후 직장인 밴드 소모임에서 키보드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셨다.

⋮

Q. 먼저 직장 생활에 관해서 여쭙보고자 하는데요. 평소에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A. 저는 주 5일 출근하고, 교직원이다 보니 8시 30분까지 출근했다가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해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송내역까지 갔다가 역곡역까지 가요. 사실 최소 거리 이동으로 검색되는 건 버스로 7호선 지하철역으로 간 뒤 1호선에서 환승을 하고 역곡역까지 가는 길인데, 그러면 환승을 무조건 2번은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서 한 번 갈아타는 방식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도 비슷하더라고요.

Q. 평소에 지인들과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나요?

A.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과 만났을 때 거의 안 하긴 하는데요. 하는 경우엔 보통 서로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많이 얘기 나누면서 서로 하소연을 하곤 해요. 많은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업무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쉬지도 못하고 지쳐가다 보니 그런 점에서 서로 대화할 것들이 있죠.

Q. 출퇴근하실 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A. 진짜 별로 생각이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이동하는 편이어서요.

일이 생기거나 당장 급한 업무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런 거 아니면 별생각 없는 편이에요.

가끔 흔히 말하는 ‘사람 구경’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Q.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A.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놀러 가는 사람인데’와 같이 어딘가에 놀러 가시는 분들로 생각되는 분들은 엄청 눈

에 띄어서 어디를 가시는 걸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가지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저 분은 발걸음은 가볍지?’와 같이 표정부터 다른 분들도 있고요.

Q. 작년 8월에 처음 밴드 소모임에 들어가셨다고 하니 벌써 1년이 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임에 갔던 첫 느낌은 어땠나요?

A.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품이 굉장히 커서 부담스러웠어요. 리더분의 지인이 운영하시는 연습실을 빌렸기에 전용 연습실이라고 할만한 장소가 따로 있었고 다들 엄청 열심히 참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 힘들 것 같다, 내가 너무 용기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진짜 딱 그 얘기를 했는데, 리더분께서 용기만 있으면 되고, 모르면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죠.

Q. 원래부터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셨던 건가요?

A.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악보 보고 천천히 따라 칠 수 있는 정도였지 악보를 빨리 보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밴드 리더분께서 피아노

를 잘 연주하는 것은 상관없고, 모르면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얘기했죠.

밴드에서 키보드를 연주해야 하는데 코드를 읽는 법도 몰랐는데 코드 연주법도 배우고 화성학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빠른 곡이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는 코드가 있는 악보들을 거의 바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습을 하다 보니 욕심도 더 생겨가지고 신디 사이저를 하나 샀는데, 가격이 좀 있다보니 중고로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함께 합주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한 이후에 공연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A. 네. 최근에 월동에서 플리마켓이 열렸을 때 공연 요청이 들어와서 버스킹 공연을 했었는데요. 공연에 직접 연주자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연주 외에도 여러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해요. 공연은 인천에서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방이든 놀이공원이든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밴드 모임을 하며 알게 된 다른 분들이 공연을 할 때 따라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죠. 가서 함께 노는 것 자체가 정말 즐겁습니다. 물론 공연을 하기까지 연습하기 위한 과정이 힘들긴 합니다

만,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요새는 직장에서도 사내 소모임과 같이 취미 활동이나 자기 계발 활동이 많이 권장되고 있다지만 사실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긴 어렵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밴드 모임에 처음에 어떻게 알고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는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친구들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 여러 소모임들을 참여하다가 밴드 모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다 보니 여러 만남들이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쉽게 친해지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보이는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저희 남자 모집은 끝났고 여자만 받아요라든지 여자 모집은 끝나고 남자만 받아요라든지 하는 모임들도 있어요. 또 연령대도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 20대는 받지 않는다는 모임들도 많이 있어요. 주로 30대에서 40대가 주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대는 취준생이 많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다든지 소모임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모임들도 거의 절반은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단지 리더한테 레슨비를 주고 레슨을 받을 것인 지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아서 지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모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잘 골랐어야 하는데 운이 좋게 지금의 밴드 모임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죠.

Q. 취미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직장인분들을 보며 평소에 느꼈던 생각이나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A. 취미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서 생각이 난 건데, 다들 ‘어떻게’ 취미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지, 또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면, 사실 제가 지금 밴드 활동을 하면서 자주 이야기 나온 것 중 하나는 인프라에 관한 것들이에요. 지금 저희와 같은 20대-30대 초중반 사람들이 만약에 밴드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의 무조건 홍대를 가야 해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밴드를 하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 5-60대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50-60대 분들의 모임이 많은 경우에 아무래도 세대 차

이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젊은층끼리는 여윌롭게 연습실을 가지거나 관련 시설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모임도 인천에서는 적다 보니 20-30대는 대부분 홍대에 모이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공간이 부족한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홍대나 합정쪽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입소문들을 타고 더 모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속한 밴드처럼 안정적으로 연습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 시간 고려하면 대부분 저녁에 모임 시간을 잡아야 하다 보니 항상 풀로 예약되어 있는 연습실도 많은 상황이에요.

Q. 밴드처럼 공동체적인 활동이 취미인 경우에는 확실히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라든지 소통의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인프라에서의 접근성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다 보니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그리고 어떻게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A. 맞아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일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가 많다 보니 제가 속한 모임처럼 함께 모여서 활동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 야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체력적으로도 힘드니 참여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죠. 한 번 참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엔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요. 누구 한 명이 계속 빠지다 보면 다 같이 모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들도 생겨서 눈치 같은 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 더 궁금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운이 좋게 이렇게 활동을 즐겁게 하지만, 다른 분들인 이런 욕망이 어느 정도 있으실까 하는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악기 하나쯤은 다루면 재밌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꾸준히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Q. 듣고 보니 저도 궁금하네요. 개인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실제로 얼마나 취미 활동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밴드 모임 참여 후에 혹시 생활에서 바뀐 부분이 있으실까요?

A. 제가 속한 모임은 보통 수요일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다른 일정들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수요일은 제외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나 그때 밴드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활동을 한 뒤에 기분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마침 일을 하는 평일의 중간에 있는 요일이다 보니, ‘월요일 출근하면 내일모레 밴드네, 화요일이면 내일 밴드네, 수요일이면 오늘 밴드고 목요일이면 어제 밴드였지, 금요일이면 그저께 밴드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일상이 되었다는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대화였다. 선생님은 부평구 내에서 연습실을 잡아 팀원들과 함께 합주를 즐기고, 지난달에는 인천 구월동에서 열린 플리마켓에서 공연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선생님과 대화는 같은 20대 후반 - 30대 초 직장인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았다. 이날의 인터뷰에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취미 생활인 밴드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어떤 기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 취미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직장인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취미 활동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을 건네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심화 인터뷰 2.

길기타 (구_나비목공방) 신동준 선생님

기타제작, 기타제작수업, 목공수업, 의뢰작업 등

부평대로 51번길 26 성원빌딩 4층 (우 21388)

인스타 : gil_guitars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평에 거주하시거나 부평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다양하게 찾아가서 의견도 나눠보고 소통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소에 관심도 있었고 부평문화재단 <부평별곳> 공간이기도 한 길기타 (구_나비목공방) 신동준 선생님께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과 함께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방으로 출발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다른 문이 나를 반겨준다. 투명한 유리창 뒤로 보이는 나무 자재들과, 톱밥 향기,

조그맣게 들려오는 국악 소리까지 나를 반겨주는 것 같
았다.





길기타 (GIL GUITAR)
신동준 선생님

Q. 공방 운영을 하시게 된 계기와 부평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나요?

A. 부평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계기는 집 작은방 하나에 공구를 가져다 놓고 간단한 작업을 먼저 하다가 그 방을 비워주게 되면서 2021년

무렵, 부평 보건소 뒤쪽에 ‘나 만을 위한 공간’, 또 ‘힐링을 위해서’ 작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목공수업도 해보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것이 생기는 등, 정말 공방 운영을 하고 싶어서 작년 초 2월달부터 지금 공간으로 이사 왔습니다.

Q. ‘부평별곳’ 소개영상에서 다른 목공방과는 달리 수공구 위주로 세밀한 작업을 다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A.제가 수공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웃음^^)

제가 기타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들기를 좋아해서 인데, 제 성향 자체도 내 손으로 나무를 느끼면서 작업할 때 재미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Q. 목공도 흔히 말하는 손맛이라는게 있나요?

A. 우리가 연필 깎을 때 소리도 나고 사각거리는 느낌도 나는 것처럼 손맛이 있죠! 기계로 만들어낸 것 보다 고되기는 하지만 더 정밀한 결과물을 낼 수도 있고, 그 사람만의 개성, 아름다운 미적요소, 등등의 수공구만의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Q. 목공방 운영, 목공 수업, 기타제작, 악기 수리까지! 다 재다능한 사장님! 어떤사람은 취미로, 어떤사람은 스트레스를 풀으러 목공을 배운다고 하는데,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궁금합니다.

A. 사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거예요. 무슨 말이나면 고민도 안 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원생이라면 공부가 직업인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 저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 때 나는 ‘왜 열심히 안하지?’ 자책도 많이 했었는데 기타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기로 와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해야 한다, 강박 없이, 스트레스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저희 프로젝트가 소통과 관련된 프로젝트인데 주변 이웃(가게, 손님)과 소통은 자주 하실까요?

A. 공방 운영 이후에 1층에 상가가 생겼어요. 요즘 양초 많이들 사용하셔서 원통형으로 된 작은 촛대를 개업 선

물로 드렸었어요. 제가 먼저 친하게 다가가서 말 거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특별히 많은 교류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벼운 인사정도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부평별곳’ 사업을 하면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계속 인스타로 소통하는 분도 계시고, 수업하면서 나름 계속 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방과 방, 벽 사이에 난 작은 창에 나무 토막 하나가 올려져 있다.
크기가 작아도 하나의 작품 같았다



Q. 과거와 비교한다면 요즘은 소통이 변했는지? 만약에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말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어서, 재작년부터 1년간 심리상담을 받았었는데 상담하시는 분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분이 상담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특히 듣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공방을 하게 되면서 소통을 하려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었고 또 손님들도 잘 호응해주고 노력을 하면서 점점 원활해 지더라고요.

Q. 소통을 하면서 수업이 원활해지는 면도 있을까요?”

A. 학교 다닐 때, 친근감이 있고 재미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처럼, 목공 수업 할 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소통을 통해 친밀해 질 수록 서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Q. 이웃들(타인)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간단한 것이나 평소에 속으로 생각했던 질문이라도요!

A. 이번에 상호를 변경했는데 밖에 달려있는 간판을 바꿀까요? 말까요? 나비목공방에서 길기타로! 기타 공방

은 간판보고 올 곳은 아닐 것 같고, 또 나비목공방 이름이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어서 다른 분께도 물어보고 싶네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큰 소리로 침을 뱉는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진 않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웃음^^)

Q. 나비목공방에서 길기타로!인스타에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을 길을 정해 공방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신동준 사장님의 앞으로의 길이 궁금합니다.

A. 작년에 [부평별곳] 사업을 지원하고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목공 수업 수요도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지만, 이런 공간들이 대체로 지원 사업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일부는 지원 사업의 취지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사업비만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공간이 자립을 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공방이 바쁘게 행사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에겐 사랑방이 될 수 있게, 작품 제작을 원하는 사람에겐 같이 소통하며 연구하는 곳, 제 자신도

작업에 몰두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올해 11월 달에 전시회에 기타 작품 출품도 하려고 하고, 앞으로의 제 길은 기타 제작가의 길을 가는 것, 저만의 기타 메이커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심화 인터뷰 3.

부개동 소재 아파트 경비아저씨

Q. 부평에서 거주중이신가요?

네. 부평 부개동에 거주중입니다. 부평에서 산지는 20년이 됐고 부평으로 오면서 경비일을 시작해서 이 일을 한

지도 20년이 됐네요

Q. 이웃들과 소통이나 대화는 많이 있나요?

A. 네. 왕래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어요. 경조사 같은 것도 챙기고요.

Q. 이웃들과 지내는 데 있어 예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분명 이웃과 담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류하고 지내고 있어서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Q. 이웃들과 소통을 잘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A.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화나 소통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대화 주제가 될만한 것도 항상 알아보고 그러죠. 팝송도 듣고 뉴스도 많이 봐요. 직업 자체가 주민들이랑 소통을 많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항상 자기계발

을 하고 있습니다.

Q.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A.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죠. 경비일 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하거든요. 항상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이발도 주기적으로 해요. 어제도 이발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요. 특히 대화에 관한 책과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데 역사책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또 버려진 꽃을 키우는 게 취미예요. 여기 단지 옆에 핀 꽃들이 우리 아파트 명물이에요. 저게 벌초할 때 되면 다 꺾이는데 봄만 되면 다시 꽃을 피우거든요.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로예요. 덩그러니 있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꽃들 집에 가져가서 키우는데 겨울 되면 꽃이 저도 봄이 되면 다시 꽃을 피워요. 그렇게 하나둘 키우다 보니 집에 꽃이 정말 많아졌네요. 꽃 키우기 꼭 해봐요.

Q. 이웃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A. 이미 이웃들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있어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요.

⋮

경비 아저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셨다. 대부분 사람이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건 알고 있지만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내는 건 순전히 자기 몫이고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들과 즐겁게 교류할 수 있다고 하셨다. 소통의 부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체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소통하고 어울리며 지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사회의 분위기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심화 인터뷰 4.

부개동 소재 철물점 사장님

Q. 부평에서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철물점을 한지 7년 정도 됐어요. 백수가 돼서 부평으로 왔는데 이사 오면서 철물점을 열었죠.

Q. 대화나 소통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A.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데 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랑이야기를 많이 해요. 같은 취미를 갖거나 공통 주제가 있으면 대화하기 편한 것 같아요. 얼굴 모르는 사람끼리 여도 벤치 앉아서 살아가는 이야기 들어가는 이야기 해요. 아니면 운동장 가서 운동하면서 노인들이랑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늙은 사람들끼리는 이게 쉽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일제 시대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6.25가 터졌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어요. 정말 먹고사는 게 걱정이던 시절이었죠. 살아온 세상이 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는 생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Q. 옛날에 비해 변화를 많이 느끼시나요?

A. 7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아주 달랐어요. 개인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생활이나 주변에 시설들도 너무 좋아졌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길도 깨끗하고. 세상이 계속 변하니까 당연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Q. 옛날과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나요?

이웃들과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모두 먹고살기 바쁘니까요. 나도 8가구 연립주택 사는데 만날 일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없고요. 예전에는 반상회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건 좀 암울하네요. 옛날에야 애 키우는 부모끼리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가족끼리 교류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Q. 그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옛날에는 본적이란 게 있어서 등본을 떼면 나의 출신이나 친척 관계를 볼 수 있었어요.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었죠. 지금은 그런 게 사라진 것도 큰 것 같아요.

Q. 이웃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A. 공통점이 있거나 평소에 알고 교류하고 지내던 게 아니라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거나 평소에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어야 묻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답하기는 좀 어렵네요.

⋮

질문과 답변들

비속어나 부적절한 답변을 제외하고
오타, 자유로운 답변 형태 등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답변을
최대한 모니터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중복되는 키워드는 색상과
글자 크기가 하이라이트 처리됩니다

1. 날씨 좋은 날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남편님과 같이
산책할 공원

제주도
인정

메롱

제주도

남산타워 꼭대기

롯데월드?

탁 트인 곳!

부산

제주도!

하와이

경주 첨성대앞~~!

2. 요즘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우쿨렐레

너생각

Ice Cream

유튜브 보기도
취미인가요

컴퓨터

독서

넷플릭스

지하상가
돌아다니기

에세이 쓰기

취미 자격증 공부

걷기!

3.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지금

민준이 이제 전학가요...

축구선수 민준이 응원해주세요!

내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날은
수능끝나고ㅋ

수능 끝나고?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 때

엽떡 먹을 때

지금 이 순간

음방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올 때

4. 인천에 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회사

태어나서...

온 김에

바다가
가까워서

그냥??

직장생활하느라

회사가
가까워서

여기서 태어나서

5.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私の家族

의지

가족

진실

MONEY

연대와 공감

진실

진실

오늘?

내 자신

웃음

가족

가족

사랑

사랑

안정된 삶

6. 주식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차관련 주식이라면
배터리에 투자하는것처럼
인프라요소에 투자함

잘...

쌀때 사서
비쌀때팔아라

주식보다 비트코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시장에 감사하라

책보고 주식하면
망한다!!!!!!

7. 꿈이 있으신가요?

대통령

아프지않고
밝게 살고 싶어요!

네!

소박한 일상을 가지는 것

나중에 학교를 짓고 싶어요

꾸준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

꿈이야 많죠

전쟁이 멈추는 일어요!

8. 햄스터는 세상에서 가장 귀엽지 않나요?

그다지

네

햄토리

모노리호지

그다지요

9.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다정히 내이름을 부르면

태연-사계

비비-편지 홀릭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거북이
비행기

거북이
빙고

10. 고향이 어디신지요?

강원도

서울이요

서울

안산

인천

서울!

서울!

과천

11. 그림 그리는거 좋아하세요?

그림 좋아요~

못 그리지만
좋아해요

좋아해요 🌸 😊

네

네

12. 월급날에 뭐 드시나요?

술약속을 잡는 편

꼬치구이

한우!!

치맥!

13.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시나요?

나는 나를 존중한다

네

진수짱

아뇨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니오

네

당연하죠

14. 공연이나 전시 자주 보러 가나요?

피카소

전시 가봄

기회가
있다면
가요

○

레베카 짱!!!

옛날엔 진짜 많이
다녔었어요!

사진 전시 봐요

돈이 있으면 가는편,,

네

오 헬러티비

네!

JS.P 멋있다

아니요

영화도 좋아요

조승우
네번봤어요

가끔씩
뮤지컬

뮤지컬
최고

히히

진수 짱짱

기회 되면
가는 편

전시
많이가면
일주일에
세번가요

15. 근처 맛집 추천해주세요!

부평 최고
피자집 피플즈

오늘 비오니까
즉석떡볶이!!!

한우

전주전집

튀김덮밥

삼겹살

튀김덮밥

닭갈비집

떡볶이~~!!

고기

아이스크림

튀김덮밥

비올땐 파전

16. 풍물축제 재미있나요?

잘하더라구요

네 재미있었어요

풍물축제
완전 잘해요

Sluuuuuuuuuu
uu

네

17. 지금 가장 땡기는 음식은?

해물파전

돈까스

파전

돈까스

존나
고기요

마라탕

우짬

해물파전

몰라

망고빙수

치즈돈까스

냄비우동

고기

햄버거

냉면

마라탕

스테이크

탕수육

삼겹살

김치

돈까스

레몬 에이드

킹콩

마라탕

18. 오늘의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본다면?

주말에도
일하는 나...
칭찬해

예쁘다

일찍 일어난거
칭찬해 5시에
일어났어요

강동원보다
잘생김 ㅋㅋ

다이어트
성공 6일차

일찍 일어나서
칭찬해

밥 반공기
먹은거
칭찬해

넌 창의적인
사람이야

잘생겼다

오늘 나 칭찬해

미라클모닝성공ㅋ

오늘하루도 열심히
살았어 칭찬해

19. 가장 좋아하는 볼펜 색깔이 무엇인가요?

蓝色

빨간색

정렬의 빨강

검은색

파란색!!!

초rㄱr운 블루□

담청색

20. 지금 밥 뭐먹을까요?

짜장면에 탕수육

파전

집밥

마라탕

다이어트 중이라
안먹음

파전

갈치조림

진수 화이팅

밥

스시

비빔밥

파전에
막걸리

해물파전

케이크

그린그린

21. 가게의 상호를 변경했는데
간판을 바꿀까요?

네

간판낚두세요

JS.P 로 상호 바꾸세요

바꾸지마요

사장님 마음대로?

네네

당연히

바뀌야되는거

아닌가

22. 저는 학교가 좋은데
학교를 좋아하시나요?

학교다닐때 좋았지..



아니요

네

학교 다닐때가 좋지

학교는
좋은데
공부는 싫어

점심먹으러가요

넌

진수 멋지다

학교때로
가고싶다.....

23. MBTI 뭐예요?

Entp

ENFP 최고

ENFP

Enfj

esfj모여라~

잉푸피

인프피요

INTP

씹프피라고
하지 마세요

E들 모여라

ENFJ

인팁은 한솔이를 좋아해

레전드 istp

infp

Intp

Infp

Infp

Infj

ISFP

ISFP

24. 너 T야?

왜!

F가정이 많지

⇒ T?

난 T아님

맞는데 어찌라고

t가 어때서!

ㅋㅋㅋ

민결 바보

넹

어 T야

반사

공감0

너 c야 t발?

J가 짱짱맨

25. 아... 너 F야?

난 완전F야~

안녕

민석바보

응 나 F야..□

F아님

ㅂ ㅎ

나는천제



호다혜는 ENTP

ㅋㅋ

민결귀요미

극 F인데
히히

F야

맞는데 뭐

높은 자신감

ENTJ가 짱임 

표 표

히애야 사랑해

어 f 야

F짱

최민석 왔다감

응아닌디? T인데

울 엄마 F

아닌뫼 난

F면
어쩔건데

F들
사랑해요

어떻게 알았지 나

26.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미스 페레그린과 안시성

이상한 아이들

월e

플립

쥬라기월드

타이타닉

세상이 해피혀

모아나

하이 앤 로우

알아서 모하게

쏘울

쥬만지

왜 궁금해??

나한테 관심있어??

아바타

Et

쥬라기공원

인턴

탐견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아일랜드 그대와 함께 본
영화

최고의 명작 킹콩

하이

해리포터 테스형

어바웃타임 세상이 왜이래 ~~

미녀는괴로워!

해리포터

나홀로집에

나는솔로야말로 쏘울
인생의 영화

๓๓๓: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위대한 쇼맨

인터스텔라

바람과함께사라지다

반지의제왕

전우치

27. 메뉴 뭐먹을지 고민될때
어떻게 하시나요?

맛집검색한다

국밥이지요

탕후루 먹기

맥날

편스토랑을 본다

배민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거 먹어요

유튜브로 먹방봐요

눈에 보이고 땡기는
곳으로 간다!

그냥 눈앞에
있는곳 가요

배민
인기메뉴보기!

추천받은 음식의
반대로 먹기

28. 나는 이번 명절에 1번 부모님 뵈러간다,
2번 해외여행간다, 3번 집콕한다.

집콕함

집콕

4번이요

4번
일한다

4번 호다혜 보러간다

해외여행.

부모님
뵈러가야지

불효자식아

3

ᄒᆞᆫ

1번

3번

29. 어렸을 때 꿈은 뭐였나요?

아이돌

가수

화가

외교관

대통령

유치원선생님

디자이너

환경공학자

수학자

30.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로빈슨 크루소

도덕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방구

성경책

우이

교과서ㅋㅋㅋ

신이 선택한 의사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ワンピース

순수이성비판

존재와시간

성경

나의라임오렌지나무

해저2만리

성경

탈무드

로빈슨 크루소

모쪼록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 저서

31.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전세살아요

전세예요

안알라줌ㅋㅋ

월세비밀!!

부천레미안
어반비스타

월세비밀ㅎ

1000에 50

왜냐하면
못알려주겠는.
못알려주는건은 인간
서가영:넌네?
그럼바이바이~

32. 제일 여행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괌

미국

아이슬란드

샌프란시스코

뉴질랜드

Deutschland

대자연이 있는 산장마을?

아이슬란드

일본

전주

하와이

서울

프랑스

이또또

France

송애크

유주는 기여어

33. 어떤 운동 하세요?

에어로빅

달리기

자전거타요

줄넘기최고

요즘
수영해요

주짓수요

달리기

푸쉬업

국궁

전 무릎이 아파서
못달려요 ㅠ

숨쉬기운동 숨쉬기

달리기

수민이는 또또

수영

34. 운동해야하는데 하기싫을때
어떡하나요?

꼭 참고 가야지

피곤해서 못하겠으면
안하고 그냥 가기
싫은거면 꾸역꾸역가요

뭐 그냥 해야지....ㅠㅠ

Just do it

걷는다

일단 생각을 비우고 땀다 나간다
그리고 노래를 틀고 생각없이
땀다 땀다 그럼 뛰게된다

미뤄요..안해요...

그냥 운동해

오늘의 저요..

그래도 가야죠

Pt를 끊으면 가게됨

가야할 날을 정해두면
하기싫은 날이 없다.

적게먹음되요

일단 걷는다.

35. 자신이 했던 행동 중
가장 자랑스러운것은 무엇인가요?

자원봉사

미라클모닝

실시한거~~!!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한거

홍비 밥먹인거

달리기 1등

부모님
호주여행

자원봉사?

양로원봉사

30키로 뺐어요

자원봉사 한것

36.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피자

초밥

스파게티

엄마가해주신

삼계탕

따뜻한 집밥

스시요

저는 카레를
제일 좋아해요~~

햄버거

피자요

스테이크

부대찌개

37.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 알려주세요!

무조건 먹기

과자 처먹으면서
애니보기♡

Game

과소비

게임하기

노래듣기

슬픈 영화보기

퍼즐맞추기!!

소리치기?

소셜 에이전트

38. 직업이 뭐예요?

학생

공무원

직장인

저는
회사원이요

학생

자영업자

백수 ㅎ

학생

유치원교사~

유치원교사

학생

무직...ㅠㅠ

태권도 사범

저 회사원입니다!

대통령

베스트셀러 작가

대통령

백수

39.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동원. 게임

사랑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게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평화

머니머니

웹툰

도르마무

강동원.

게임

사랑

우리집 고양이 앵두.

햇살 아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앵두 쓰다듬기

40. 신을 믿으시나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아니

믿겠어요?

아니요

믿습니다

천주교

네

무교

아니요

넌

내가 바로 신이다.

아니

아니요

도르마무 에 햇님

아니요

뉴진스 하아보이요

아농
ㅌㅌ

자기
자신

응안믿어최민또가최고!

무교

믿습니다!

ㅋ

아니요

기독교

누구

41.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태어나기전

유치원때

비트코인 뜨기전

5살

20살

대학교

괜처냐

유치원때

엄마뺏속

할렐루야

Lilly

2023.6.2

초등학교 입학식

엄마 너무해

고1

중2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싶다

우리 엄마는 알만 하고
나랑 안 놀아줌

42. 부자 되는 비법 알려주세요!

로또

월급으론
힘들다

아주잘하면되요

사업해야지
월급으론
부자 안댐

우선
안써야함

JUST
WORK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한다

부지런히 살기

코인

43. 어느 회사에 다녀요?

선물

직장인인디요

애플매장

중소

밴드(음악)

대학원에 다닙니다

수산물시장 다녀요
게 팔아용

백수

—

이게머임

현대

백수

貿易公司

삼성

학생이에요!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만 곧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거야

골드만 삭스(가고싶다)

44. 가장 설렜던 순간이 있나요?

이사갔을때..

퇴근하고
집들어갈때

로또3등

45.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을때가 언제인가요?

일이 잘 안 풀릴때

군대가기 하루 전날

46. 나만 알고 싶은 명소가 있나요?

제주도 상가리 목장

세븐틴 숲

천문대

별마로

하늘공원
갈대밭뒷길

47. 다이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

유산균 먹기

무설탕 식단

열심히 뛰어요

펩시 제로 라임 사고
10키로 빠졌어요
이빨이 누래졌지만

적게먹고 움직이기

조금먹고
운동 많이하면
무조건 빠짐

알룰로스부터 사세요

游泳是一项好的运动

48.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설치류

성실한 사람

사람

이쁜사람

비버

배고픈사람

똑똑한 사람

금수저가
되고싶은 평범녀

PERSON

긍정적인 사람

사진작가

개박하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열 받는 사람

평범한 사람

뒹굴뒹굴

찌 아주

못쟁이

남들 눈치
안보는사람

49. 취미가 뭐예요?

사진

똥굴똥굴

클래식 음악 듣기

국궁

뜨개질

피어싱

지하상가 구경하기

50. 퇴근하면 피곤해서
뭘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릴렉스

일단 나가요

그냥 자야죠 뭐

영화관가서 영화보다잠들ㅋㅋ

일단 쉬어요

뭘 하지 말아요

커비 게임 하기

못하겠으면
쉬어야죠

먹방보면서 치맥

일을 덜하기

그냥 꿀잠!!

51. 길에다가 침뱉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걸까요?

불만

불만많은사람

세보일려고

세상에 대한 불만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또라이

귀여운사람 몰라요

생각이 없는것

생각없이
사는 사람..

이 침 삼키기 에바다

생각없는사람
222222

저희 예상보다 질문 간에 답변의 개수 차이가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가장 많았던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질문으로 총 64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미얀마어 답변(레전드 오브 타잔)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답변이 적은 질문은 ‘월급날에 뭐 드시나요?’ 질문으로 총 4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율이 가장 높고 낮은 질문과는 별개로, 음식에 관한 질문이 대체로 답변율이 높았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하는 질문들이 답변율이 낮았습니다. 현장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니 시민분들이 모니터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생각을 깊게 해야 하는 질문들이 답변율은 낮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고민하신 분들은 적지 않았을 것 같아 더 의미 있는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 질문 내에 중복이 가장 많았던 답변은 ‘직업이 뭐예요?’ 질문에서 ‘회사’라는 키워드로 총 9번의 중복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총 51번 질문했고 이에 698번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답변을 나눠 대화를 완성해 주신 모든 이웃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맺음말

소감-조한결

8월에 첫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10월 둘째 주에 미디어아트 현장 설치 작업으로 시민들과 만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팀원 분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작품을 제작했고, 직장인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도록으로 만들기까지. 전과정이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예술의 형태로 ‘대화’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화의 조각들을 맞춰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부평지역의 다문화 특색 중 하나인 미얀마 거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참여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했던 시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디어아트로 시민분들과 만난 10월에 여러 언

소감-여해인

“기” - 공모신청 준비단계

[2021 꽤 쓸모 있는 도시실험]을 준비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문화1호선, 좋은 일을 만들어요] 취지에 맞을 수 있는 콘텐츠를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에 팀원들과 정말 많은 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부평역을 중심으로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어야 해서 각 요소들마다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준비를 생각보다 열심히 했던 게 실제로 프로젝트 전반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승” - 프로젝트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 후

선정이 된 후 수원에서 합동 워크숍이 열렸을 때, 각 도시마다 다 다른 주제여서 좀 흥미로웠고, 확신을 갖고 [디모 대화의조각]을 준비했던 것 같다.사전에 계획을 많이 했어서 비교적 쉽게 세부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비 대여 업체선정이나 딱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같은 부분은 팀원들이 각자 역할을 너무 알아서 잘 해서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전” - 프로젝트 실행

부평아트센터 안, 부평역 지상광장에서 보드판을 설치해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기도 하고 패들렛 사이트로도 질문을 수집했는데어떤 질문은 비슷하게 많이, 어떤 질문은 상상 하지도 못한 독특한 질문이어서 선정할 때 재미있게 작업했었다.각자 자유롭게 현장 인터뷰를 맡고, 나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길기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인터뷰 응답을 너무 잘 말씀 해주셔서현장 인터뷰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더 한 것 같다.

평소에 부평역과 지하상가 안을 되게 헛갈려 했는데, 사전 답사를 몇 번 하니 머리속에 나름대로 지름길이 막 생겨서 현장 프로젝트 때는 위치를 생각하면 저절로 발이 막 움직이는 신기한 경험도 했었다ㅎ

“결” - 현장 프로젝트 종료 후

10월 14일-15일, 이틀이 거의 4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새벽부터 밤까지 설치하고 해체하고, 계속 시간마다 각 모니터 체크를 위해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피곤함이 짝 잊혀질 정도로 시민분들이 실제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답변들도 다양해서 부평역 전체를 하나의 소통창구로 만들어보려는 취지를조금이나마 달성한 것 같다.

도록에 남기기 위해 답변들을 정리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진지하게 남겨준 말도 있고, 학생들의 귀여운 장난도

있고, 잘 모르는 남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비슷하구나 싶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화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 준 것 같다.

생각으로 막연히 짐작했던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내가 있을 때 굉장히 보람차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준 프로젝트 인 것 같다.

Special thanks to..

디모 팀원들!

(막내지만 든든한 리더 역할을 해준 윤수님!)

(없었으면 프로젝트 구현하기 어려웠을 기락님!)

(적재적소에 맡은 바 역할 + α 해준 한결님!)

부평구문화재단 노수진 담당자님!

길기타, 신동준 선생님

중국어 번역에 도움을 준 성원이!

소감-김기락

재밋고 흥미로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웹 쪽 개발 경험이 거의 없어 시행착오를 겪느라 시간을 많이 쓰긴 했지만, 결과물이 나오고 시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걸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이전에도 텍스트 기록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해보긴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해 오던 프로젝트들과 환경이 많이 달라서 (사용자가 각자의 기기로 참여, 웹 기반 프로그램 등)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 이상으로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상냥하게 답변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소감-김윤수

머리속으로 상상하던 것을 끝내 눈앞에 실현하는 일은 언제나 마음에 특별한 무언가를 남깁니다.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걸 잘 녹여낸 것 같아 기쁩니다. 무얼 하든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그럼에도 이번 <대화의 조각> 프로젝트는 200% 성공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DIMO팀 한결이형, 해인이 누나, 기락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치며

<대화의 조각> 프로젝트의 전과정을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부평을 생활권으로 하는 많은분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본 프로젝트는 깊이 있는 대화에서부터 가벼운 대화에 이르기까지 조각나 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된 무대였던 부평역과 부평역 지하상가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장소이자 만남과 대화의 장소라는 이중성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장소입니다. 먼저, 부평역은 부평의 중심에 위치한 노선임과 동시에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천 1호선이 함께 있어 매일매일 생활권을 중심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장소입니다. ‘역’이라는 장소성으로 인하여 머무르며 휴식하고 대화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공항’이나 ‘버스터미널’과는 다소 구분되는 이동의 흐름과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지요. 하지만 부평역과 연결된 부평역 지하상가는 부평역 1호선 북부역 출구 쪽에 있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만남의 장소임과 동시에 지하상가에서의 쇼핑을 중심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 장소성이 맞물린 특수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시 생활의 면모를 지닌 두 장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으레 많은 도시의 삶이 그렇듯이 삭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장소에서 부평을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시민분들이 ‘대화’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부평은 미얀마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다문화 지역이기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어만이 아닌 다양한 언어를 통해 문화예술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참여자 수는 적었지만, 이 시도를 통해 <대화의 조각> 프로젝트는 실제 미얀마어나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배경을 지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이 문화적으로 더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실험이 의미있는 레퍼런스가 되기 바랍니다.

너무나 바쁘고 쉴 수 없으며, 끝을 모르게 달려야만 하는 현대 사회는 확실히 서로가 대화를 하며 정을 나누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각 자만의 방식으로 서로와 연결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써 시민들과 연결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
니다.

언젠가는 <대화의 조각>과 같이 ‘대화’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작업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고 또 한 장
소에서 오래 지속되어, 해당 지역에서 쉽고 재미있으면
서도 따뜻한 방식으로 어떠한 문화적 기억 혹은 사회적
기억을 형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연결되는 감각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DIMO

대화의 조각

지은이 김윤수, 김기락, 여해인, 조한결

펴낸이 김윤수

펴낸곳 DIMO

편집인 김윤수

이메일 mando717@naver.com

ISBN 979-11-976799-1-9

© DIMO, 2023